

남조선인터넷홈페이지 《구국전선》(http://aindf.com)에 《구국전선》편집국 론단 《보수집권세력의 《정통성》 타령을 논함》이 실리었다.

글 전문을 소개 한다.
수수천년 하나의 강토에서 한교 줄을 이어오다가 20세기 중반기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70년을 이어오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력사는 하나의 물음을 제기하고있다.

조선민족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자주로 존엄떨치며 민족의 념과 슬기와 지혜를 체현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활짝 꽃피워나가고 있는 북이 조선민족의 정통성을 체현하고있다는것은 론의의 여지도 없는 정설이다.

민족의 정통성이 그 민족의 형성과 존재와 발전의 진행정에 면면히 계승되어온 력사적전통이라고 할 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의 핵은 남달리 강한 자주성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겨레는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를 가지였기에 수많은 외침과 외압을 물리치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빛내여올수 있었다.

력사는 민족자주정신이 강할 때 나라가 강성하였고 민족자주정신이 병들 때 민족의 운명이 수난을 당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구려의 강성과 고려의 문명으로 이름높던 우리 민족이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봉건통치배들에 의해 자주정신이 병들면서 무기력해지고 결국 일제에게 나라를 먹히우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무장을 높이 드시고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도 살았다고 민족의 념을 흔들여 깨우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민족자주정

신의 최고정화인 주체사상의 보습으로 세기를 이어 짜들어있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풍토를 갈아엎으시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자주정치를 굳건히 실시하시으로써 공화국은 그 어떤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도 끄떡없는 자주

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으며 북은 조선민족의 기상이 차남치고 민족성이 활짝 꽃피는 민족의 본향으로 존엄과 영광을 떨치고있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굴레를 벗자마자 미국의 식민지명예를 쓰고 살아온 이남에서 《광복절》을 기념한다는것자체가 말이 안되는판인데 《정통성》타령까지 울려나오고있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사생아에 지나지 않는 이남 《정권》은 애초에 그 어떤 《정통성》을 입에 올릴수 없는 정권 아닌 《정권》이다. 이남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이 《상해림정》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정부니, 《광복후 남쪽에 단독정부

를 세운것이 축복》이니, 《8.15를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느니 하는 꾀병으로 미국에 의해 조작되고 사대매국으로 일룩진 저들의 수치스러운 행적을 미화분석해보려 하고있다.

이것은 민족자주정신으로 관통되는 민족사의 기본줄기를 외면

하고 사대와 매국으로 찢든 저들 《정권》에 《상해림정》의 법통 계승에 빔대어 그 무슨 《정통성》을 분칠해보려는것으로서 현 집권보수세력의 기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남보수당국이 《뿌리》라고 말하는 《상해림정》에 대하여 구태여 말한다면 1919년 3.1인민봉기이후 중국에 망명해간 우국지사들이 만들어낸 망명정부

의 형태를 띤 하나의 독립운동단체이며 그것도 주류가 아니라 지류에 불과한것이였다. 하기에 장개석국민당정부도 《상해림정정부》를 일종의 대일교전단체로서 《사실승인》이라는 외교조치로 통지했음뿐 정부로서는 애당초 공인상대하지 않았다.

1945년 6월 미국무성도 《림정》은 조선반도의 어느 한 지역도 행정적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으며 실질적이고도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있으므로 승인할수 없다고 통고하였으며 해방후에도 남조선땅에 발을 들여놓은 《상해림정》관계자들을 정부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만나주었을뿐이다.

미제에 의해 조작된 《단독정부》와 인맥관계를 놓고보아도 《림정》은 아무런 인연도 없다. 더우기 《상해림정》의 범통인인 장 역시 김구자신이 위대한 주석님을 우리 민족의 유일한 령수, 해방조선의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며 그이앞에 정중히 바치겠다고 내놓았던것이다.

《상해림정》의 범통은 친미사대매국집단에 의해 계승된것이 아니라 미국과 사대매국노들에 의해 오히려 사멸되였다. 이남의 《조대대통령》이라고 하는 리승만역도로 말하면 미국에 가 있을 때인 1918년에 벌써 자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밝힌 친

일매국노이며 《위임통치론》과 《자치론》을 들고다니다가 《상해림정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반년도 못되어 쫓겨난 추악한 인간쓰레기이다.

《단독정부》가 조작될 당시 립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군부의 요직에는 《간도보벌대》의 간관을 쓰고 함일유격대와 반일독립군을 악착스럽게 《도벌》하는데 앞장선 김석린, 정일권, 백선엽, 리응준, 리종찬을 비롯한 친일매

국노들이 들어앉았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렬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림정》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극악한 친일매국의 무리들이 항일, 독립을 표방한 《상해림정》의 범통을 계승하였다고 떠드는것은 력사의 진실에 대한 공공연한 외곡이고 김구를 비롯한 반일을 애국지사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특히 피뢰페당이 1948년의 《단독정부》조작날을 《건국절》로 제정해야 한다느니, 《해방후 남쪽에 단독정부를 세운것이 축복》이라느니 뉘니 하는것이야말로 민족분렬의 고투과 슬픔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다싶이 일제를 대신한 미군의 이남강점으로 시작된 민족분렬의 비극은 친미사대매국세력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통일적발전에 더욱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근로민중이 주어진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남민중의 건국지향에 의해 각지에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하고 모든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법화하였으며 수많은 애국민중을 체포, 투옥, 학살한 사대매국의 무리들이 미제의 각본에 따라 불법으로 조작한것이 바로 박근혜집권세력이 《정통정권》으로 내세우는 리승만의 《단독정부》이다.

자주정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며 《단선단정》을 반대하여 분기한 제주도봉기자들을 비롯하여

화순과 하의도, 려수와 순천의 애국민중을 무참히 살해한 이 친미사대매국정부가 미국의 사측하에 6.25전쟁을 도발하고 민족의 대재난을 초래하였으며 전후에도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이남의 애국인사들과 각계 민중에 대한 탄압과 유린, 학살만행을 거러짐없이 감행하였다.

그래서 우리 겨레모두는 이 땅에서 폭력에 의해 《단정》이 조작된 날은 《건국일》이 아니라 제2의 국치일로 단정하였으며 그 연장선 상에서 생겨난 리승만 《정권》으로부터 오늘의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력대파괴독재 《정권》을 미국의 하청 《정권》이라고 규탄하고있는것이다.

박근혜당이가 찬미하는 리승만을 놓고보아도 일제기 《두루마기는 입어도 마음만은 미국어른을 따라야 한다.》고 떠벌이며 미국의 위임통치령을 주장하다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리완용보다 더한 빼앗긴 나라까지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로 규탄받고 《상해림정》에서 탄핵철회된 자이다.

미국에서 양자로 키워져 일제의 매망과 함께 귀국한 후에는 《5.10단정》으로 민족의 통일독립을 가로막고 정국을 극우보수로 돌려세웠으며 사사오입개헌으로 헌정사를 란도질하다가 4.19인민항쟁에 의하여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해외에서 무고고혼의 신세가 되었다.

이같은 리승만 《정권》이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한 정통정권으로 될수 없고 4.19광장에서 심어놓은 민주의 새 싹을 5.16군화발로 짓밟아버리고 7.4남북공동성명

으로 밝아오던 통일의 서광을 10월 《유신》으로 차단해버린 오까모도 《정권》(박정희 《정권》)과 《12.12숙군주체라》와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전권》, 《문민》의 너을을 켜던 김영삼 《정권》과 《실용》의 간판을 내들고 6.15자주통일시대를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 리명박 《정권》이 그 무슨 《정통성》을 가진 《정권》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미국의 후원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를 타고앉아 《유신》독재무활을 꿈꾸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민족자주정신을 말살하려드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집권후 미국을 찾아가 《포괄적 전략동맹》과 《형평관계》를 떠들며 주중관계를 재확인하고 돌아온 박근혜는 상진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고있다.

천문학적액수로 뒤흔어오는 《주한미군유지비》며 국민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또다시 연장하려드는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여 미국의 살인무기들을 대량적으로 이 땅에 끌어들이다 못해 외세와 야합한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미국에 의해 조작되고 친일친미파로 일색화되었으며 친미사대매국과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된 이 땅의 《정권》은 어떤 정통성도, 합법성도 가질수 없다. 구태여 정통성을 논한다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추악한 바통만을 이어온것뿐이다.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로 시대와 력사앞에 섰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선일자들의 전철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러한 반역의 길로 질주하는 박근혜보수집권세력이 사대매국과 반통일의 더러운 력사를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반

역정권을 미화하며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획책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꾀병에 불과하다.

까마귀 아무리 분칠해도 백로로 될수가 없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의 발산지는 무적의 선군정치로 침략자 미국을 위락편락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전진족을 자주통일위업으로 선도해나가고있는 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 교배한 덕망을 천품으로 체현하시고 북을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민족자주의 성세로 억척같이 다지며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하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자주정치의 시조이시고 투철한 구한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영원히 자주사상의 발원지, 자주정치의 성세로 영원한 계승의 력사를 새겨갈것이다.

우리 민중은 이 땅의 식민지수난사와 민족분렬의 비극사를 더 이상 지속시킬수 없다.

전민중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의 식민지통치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굴종정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일로매진해야 한다.

온 겨레는 하나로 굳게 뭉쳐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가야 하며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2015년을 조국통일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해로 빛내여야 한다.

각계각층 애국민중이 절세의 위원을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앞세워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 때 이 땅에 반드시 자주화면 새세상, 민주의 새 사회, 통일병영하는 하나의 조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전쟁연습강행은 자멸의 신호탄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으로 북남관계가 더욱 격화되고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점경으로 치달고있다.

공화국의 자위적군사훈련을 《도발》로 매도하며 그 무슨 《용징》이니, 《체제생존각오》이니 하는 망언들을 내뱉으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한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정들은 말끝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그 무슨 《년례적》이니, 《방어》니 하며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세상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한갖 미사려구에 불과하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년례적》이 정례적이라는 리유로 군사연습을 정당화하는데 년례적이면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해도 정당

한것이나?》고 주장하며 남조선군부당국의 북침핵전쟁연습강행시도를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북침핵전쟁공격각본에 따른 미군과 남조선군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숙달완성하고 군과 행정기관, 민간인의 전쟁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할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정들은 이 연습의 테두리안에서 그 누구의 《금번사태》시 북의 중요대상들과 군사시설들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탐지, 제거》훈련과 《북안정화 및 민정이양작전》훈련을 벌려왔다. 이번 훈련에서 적용되는 훈련의 내용들 역시 공화국의 전략적종성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핵선제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게 된다.

이번 연습에는 미군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병력과 최

신전쟁장비들은 물론 《정부》기관들과 수습만에 달하는 민간인들까지 동원된다고 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북침핵선제타격을 공식화한 《맞춤형억제전략》이 이번 전쟁연습에 정식 적용되는것을 하여 더욱더 침략적인 성격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맞춤형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남조선미국 《안보협의회》에서 조작한것으로 북이 핵 및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동원하여 《선제타격》한다는 것이다.

내외 호전정들은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전략개념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될것이라느니 뉘니 하면서 이번 연습에서 《맞춤형억제전략》의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실천에 적용하는 훈련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당국이

그 누구의 《핵무기사용징후》를 구실로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북침핵선제공격에 나서려하는것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다.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모험적인 북침핵선제타격으로 이어가려는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기도는 벌써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얼마전 미국이 《B-2A》스텔스전략핵폭격기 3대를 팔도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한것도 《맞춤형억제전략》이 실천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의 《3대핵기동》의 하나이며 16발의 핵미사일을 탑재할수 있는 이 전략핵폭격기는 요쓰보사태와 아프가니스탄전쟁, 제2차 이라크전쟁, 리비아공습 등 수많은 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술레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한데로부터 《하늘의 저승사자》로 악명을 떨쳤다.

지난해 3월 28일 무엄하게도 남조선지역상공에까지 날아들어 공화국을 겨냥한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던 《B-2A》가 팔도에서 언제 또다시 남조선에 날아들지는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남조선군부호전정들은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울지》훈련을 시작하는 등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최

신헤라격수단들을 투입하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훈련을 벌리려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에 있어서 철두철미 공화국을 겨냥한 핵선제공격연습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공화국을 핵라격수단들과 최신전쟁장비들, 방대한 무력으로 어쩌보려는것은 가장 큰 오산이다. 이미 천명한것처럼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에 대비한 자위적억제력이며 정의의 보검이다.

미국이 남조선의 호전세력을 부추겨 《년례적》이니, 《방어》이니 하는 간판을 내들고 북침핵전쟁연습을 해마다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은 부득불 핵을 비롯한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갈수밖에 없으며 전략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게 될것이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핵전쟁연습의 시작은 곧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모든것을 파멸으로 떠밀게 될것이며 남조선당국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고립압살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끝끝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는 절호의 기회로 될것이지만 적대세력들에게는 다시는 해빛을 볼수 없는 멸망의 마지막순간이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 미국의 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북침전쟁연습에 미처날뛰는 미군과 남조선군



살인주범은 누구인가

《부대생활이 너무 힘들다.》, 《긴말씀 안드립니다. 힘듭니다.》

마지막유언치고는 너무나 짧막하다. 그러나 이 글속에는 이룰수 없는 고뇌와 번민, 울분과 원한이 함축되어 있다.

지난 11일 서울의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남조선군 2명이 휴가중 이런 글을 남긴채 자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최근 남조선군내에서 《윤일병타살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폭행, 살해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와 경악을 자아내고있는 가운데 또다시 러지면 사건은 민심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군부가 얼마나 썩을대로 썩었는가. 가혹한 폭력과 인권침해, 인간에 의한 인

연 이런 군내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들을 서슴없이 내보낼수 있겠는가. 이번 남조선군 사병들의 자살사건은 남조선군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육체를 강고리 짓밟는 강

페집단이고 생지육체를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분노한 민심의 초점은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에게로 모아지고있다. 군내에서 집단구타와 폭행에 의한 각종 살인만행과 인권위

런행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거지며 한 주범이 바로 김관진이라는것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갈려진것처럼 극악한 호전광이며 동족대결본자인 김관진은 2010년 국방부 장관자리

에 올라앉자마자 군을 《북과 싸워 이길수 있는 전투형 군대로 만들기 위해 군기를 확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 기합과 폭행을 로

골적으로 조장시켜왔다. 극

부활체들과 사병들을 동족대

결의 미치광이로 만들고 극

악한 인간중오사상과 야수성

으로 길들이면서 《윤일병타

살사건》과 같은 인권유린만

행들을 군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레상사로 만들어놓

군부깡패의 사퇴를 주장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8일 피뢰군내 폭행사건의 장본인 을 처벌할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8사단에서 발생한 일병사상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있다고 밝

했다.

본사기자

인가.

그의 귀에는 귀한 자식들을 잃고 수습여일간이나 단식을

해가며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는 《세월》호유가족

들과 《윤일병타살사건》으

로 격노한 민심의 목소리가

안 들린단 말인가.

국

의 핵억제

력에 대해 입

에 올릴 자격

조차 없다.

남조선당국은 윤병세와 같

은 대결망나니를 내세워 내

우의한,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

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그

만두는것이 좋을것이다.

동족대결로써 차례질것

이란 비참한 자기 파멸뿐

이다.

리 어 금